

전주 첫 마중길 조성사업 '마무리단계' ... 사업 효과는?

# '이미지 개선 · 역세권 경제회복 · 안전' 기대

### 도로 한가운데 6차선 폭 가진 명품광장 조성 마중길 광장 · 거리, 관광객들 머무는 공간으로

전주시가 첫 마중길 조성 사업을 통해 낡고 협소한 전주역 주변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갈수록 슬럼화되고 있는 6지구 일대의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7일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전주역 주변 첫 마중길 공사현장에서 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며, 이 같이 첫 마중길 조성 의미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첫 마중길은 자동차만 가득했던 전주역에서 명주골사거리까지 백제대로 약 850m 구간을 차도에서 문화광장과 명품가로수길 등 시민을 위한 광장과 거리로 바꾸는 사업으로, 오는 20일 FIFA U-20 월드컵 개막에 앞서 주요공정이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16면>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첫 마중길은 전주의 첫 인상을 확 바꾸는 일이다. 한 사람의 첫인상은 개인에게 멈추는 것이지만 도시의 첫인상은 도시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전주의 첫인상인 전주역 앞 대로를 사람과 생태, 문화의 가치를 담아서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의 관문이자 아주 매력 있는 첫인상으로 바꾸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또, "전주 첫 마중길은 자동차보다는 사람, 콘크리트보다는 녹색생태도시, 직선보다는 곡선을 강조하는 도시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라며 "이곳이 관광객들이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닌 머무는 문화공간이 돼, 늘 상권이 죽어있던 전주역 주변과 인근 6지구의 상권을 살리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가 수많은 관광객이 전주에 첫 발을 내딛는 전주역 앞에 첫 마중길을 조성하려는 것은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관광객이 지나쳐가던 공간을 사람이 머무는 공간으로 만들어 역세권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것이다. 또, 보다 안전한 도로를 만들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첫 인상의 경우, 시는 차도를 기존 8차선에서 6차선으로, 불법주차가 만연한 차선 폭(15~25m)을 가진 명품광장을 조성하고, 광장에는 느티나무와 이팝나무 등 수목 400여 그루를 심었다. 나무가 우거지면 대로 위의 자동차와 내면, 문을 담은 유흥업소 등으로 황량했던 전주의 첫 이미지가 녹음과



런닝하는 기니 대표팀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A조 1차전 대한민국의 첫 경기를 앞둔 기니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17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월드컵 트레이닝 필드에서 가벼운 런닝을 하며 몸을 풀고 있다.

사람이 가득한 이미지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역세권 경제 활성화의 경우, 시는 첫 마중길 광장과 거리를 문화특별시 전주의 품격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머무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관광객들이 머무는 공간이 열리고, 주변 상점들도 활기를 띌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앞으로 첫 마중길에 다양한 문화장터와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베틀시장, 버스킹공연, 예술경연대회 등 문화와 예술로 채워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을 예정이다.

안전한 도로의 경우, 시는 차량의

속도를 줄여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기존 백제대로 직선도로를 S자형 곡선도로로 바꿨다. 직선도로를 곡선도로로 바꾸려는 시도는 전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일례로, 프랑스 파리와 콜롬비아 보고타, 뉴욕·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등지에서는 직선도로를 대표했던 고속도로마저 곡선형으로 바꿨다. 경찰청이 지난 2009년 발표한 도로 선형별 교통사고 분석에 따르면, 연간 발생한 21만5822건의 교통사고 중 곡선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7.3%에 불과한 1만5879건으로, 직선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19만7822건(91.7%)보다 훨씬 적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첫 마중길은 전주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공간이다. 첫 마중길로 인해 40년 동안 침체된 6지구의 경제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첫 마중길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은 물론, 운전하는 시민들께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멋진 콘텐츠로 꼭 채우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 첫 마중길을 함께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가 잇따르면서, 시민희망나무 헌수운동에는 지난해 5월 1호 참여기업을 시작으로 기업과 단체, 일반 시민 등 총 120여건, 1억 5000여만원의 성금이 모금됐다.

/김민근 기자

'회식비에 목욕까지...'

## 뇌물 받은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가축약품 대표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 2100여만원을 받고 특정업체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고서를 조작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친)는 뇌물수수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 원주군 청 가축위생계약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4500만원을 선고하고 2100여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가축약품 대표 등 3명으로부터 "소독약품 등을 구입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모두 17차례에 걸쳐 2100여만원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식비와 직원 간식비, 목욕비 등을 제공해달라는 명목으로 업체 대표들에게 돈을 요구해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500만원까지 받아 행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015년 12월 허위로 출장보고서를 작성한 뒤 공문을 올려 업체에 보조금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자신에게 뇌물을 건넨 업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허위 진술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민근 기자

## '지붕 없는 미술관' 여기에 있다

월드컵경기장 주변  
시내버스 승강장  
예술가들 손길로 탈바꿈



다고 17일 밝혔다.

월드컵경기장 시내버스 승강장 2곳의 예술테마는 '한옥의 꽃창살을 통해 바라본 아름다운 전주'로, 전통 짜맞춤 기법으로 견고하게 프레임 제작하고 문양 디자이너가 창살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정교하게 투각했다. 여기에, 포인트로 고전 명화와 자연의 형상을 가미했다.

/김민근 기자

FIFA U-20월드컵 개막전이 열리는 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 시내버스 승강장이 지역예술가들의 손길 이 스며있는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탈바꿈했다.

전주시는 U-20월드컵 경기관람을 위해 전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글로벌 문화도시 전주의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월드컵경기장 동문 쪽에 위치한 시내버스 승강장 2곳을 지역예술가들이 참여한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조성했

## 4050 중년층 48% "부모 부양, 부담 느껴"

"본인 노후 준비도 부족"

40~50대 중년층의 절반 가까이는 부모 부양에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전국 만 40~59세 1000명을 대상으로 '부모 의료비 부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17일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48.1%는 부모 부양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33.7%였고,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대답은 18.2%에 그쳤다.

이들은 부모 의료비(48.9%)와 생활비(47.6%) 등 경제적 부담을 주요 원

인으로 꼽았다.

부모의 의료비를 부담한 자 가운데 절반 가량은 1000만원 이상 썼으며, 3000만원 이상 부담한 경우도 20% 수준에 달했다.

또 10명 중 6명은 자녀인 본인이 부모의 의료비를 주로 부담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본인의 노후 준비는 부족했다.

응답자의 대부분(84.9%)은 자신의 노후 의료비 준비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생활비도 빼듯한 경제상황'(58.7%)과 '자녀양육·교육'(52.7%) 등으로 노후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부모 부양에는 책임의식을 가졌지만

자녀에는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했다.

자녀가 본인의 노후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 '당연하지 않다'(60.2%), '미안하다'(73.9%), '싫다'(61.6%) 등 부정적 인식이 많았다.

위원장인 이수광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이제는 노후의 의료비 부담이 자녀 세대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라며 "노후에도 나와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는 것만큼이나 자신의 노후 의료비 지출에 대해 미리 미리 준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 유명 게임 불법 자동프로그램 판매 거액 행진 일당 덩이

유명 온라인 게임 불법 자동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경쟁 판매자 홈페이지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24)씨와 이모(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프로그램을 유저들에게 판매해 1억4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프로그램에 악성코드를 숨겨 구매자 PC를 '좀비PC'로 만든 뒤 경쟁 판매자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 벌어들인 수익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역**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